

고민 없는 도시계획에 읍·면까지 뒤통은 고층 아파트

전남도도시계획위원회 상반기 심의 5건 모두 20층 이상 개발 승인
경관 조화·마을 정체성·인구 추계 등 고려 없이 개발 이익만 반영
녹지·저층 주거지역 잇단 용도변경...전남도 경관계획과도 배치

전남도내 읍면 시가지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개발을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방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변 경관과의 조화, 해당 시가지 정체성, 과도한 개발 이익 억제 등의 기준을 갖고 이 같은 개발계획을 면밀하게 심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가 제출한 계획안을 모두 원안 또는 조건부로 승인해주기 때문이다. 대부분 이러한 계획안들은 녹지, 저층이나 중층 주거지역을 고층 아파트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해 무분별한 난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인구 감소로 인해 쇠락하고 있는 읍면 시가지 내에 문 닫은 점포, 빈집 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공간은 고층 아파트 단지로 조성되면서 이질적인 공간이 양산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시계획위원회는 5차례 회의를 개최해 19건의 안건을 다뤘으며, 이 가운데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된 안건은 모두 5건이었다. 이들 5건 가운데 2건은 원안 그대로, 나머지 3건은 조건부로 각각 승인돼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원안 승인된 안건은 '순천 왕지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해남읍 공동주택 개발 행위허가'로, 이들 사업은 각각 43만9079㎡, 1만4434㎡ 등의 부지에 29층, 26층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는 적도인 용적률을 250%, 212.7%로 보장해줬다. 인근 지역과는 전혀 다른 높이의 고밀·고층 개발이 가능하게 해준 것이다.

조건부로 승인된 '광양 광양읍 공동주택 개발 행위허가', '순천 조례동 공동주택 개발 행위허가',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등도 모두 20층 이상 아파트 단지 조성 사업이다.

특히 '순천 조례동 공동주택 개발 행위허가'의 경우 건폐율(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 76.3%, 용적률은 무려 736.8%로 최고 높이가 39층에 달했다. 이러한 건폐율, 용적률은 매우 이례적으로, 상업지역 2만6568㎡의 부지에 921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했다. 정원도시인 순천에서 고층 아파트 계획이 잇따라 승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고층 아파트 개발 방안은 지난 2020년 11월 전남도가 작성한 '2035년 전라남도 경관계획'과도 배치된다. 이 계획에서는 "기성시가지 이외 지역의 고층고밀 아파트 주거사업을 지양하고 대단위 아파트 개발사업이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경우 획일화·무개성화·비인간화의 적극적 개선을 유도해 각 아파트 단지별 경관적 특성을 부여"하도록 했다. 경관계획은 계획에만 그치고 실질적인 개발은 업체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도시계획위의 허술한 심의가 지나치게 업계 관계자 비중이 높은 위원 구성과도 관련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20명의 외부 위원 가운데 지역 대학 교수 10명, 업계 관계자 10명 등으로, 업계 관계자의 비중이 절반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전남도가 위원 구성, 안건 선정 등을 주도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적인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지역대학 한 교수는 "전남의 시가지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 읍면시가지 개발사업 등 정부부처의 다양한 사업과 연계해 각각의 정체성을 갖도록 유도해야 하며 아파트 개발사업 역시 이러한 전체적인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도시계획위가 보다 심도 있고, 특히 전남의 시가지 경관을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심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주민들이 빠져나가는 읍·면에도 고층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 전남 시골 마을의 정체성, 주변 경관과 인구 추계 등을 고려하려는 전남도 경관계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화순군에 건설되고 있는 고층 아파트.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코로나 폭증...하루 확진자 4000명대

1월 4일 이후 첫 각각 2000명대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한 달 만에 3배 이상 신규 확진자수가 늘었고, 일일 확진자수도 광주·전남 모두 지난 1월 4일 이후 각각 2000명을 넘어섰다.

2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9~25일 광주에서 누적 1만348명, 전남에서는 1만2650명이 신규 확진됐다.

광주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는 6월 21~27일 529명, 6월 28일~7월 4일 611명, 7월 5~11일 812명, 7월 12~18일 1059명, 최근 1주 1478명으로 매주 증가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같은 기간 각각 488명, 673명, 876명, 1296명, 1807명꼴로 매일 확진됐다. 불과 한달 만에 광주는 2.8배, 전남은

3.8배나 증가했다.

지난 25일 광주지역 하루 확진자는 2193명, 전남은 지난 24일 2137명·25일 2451명으로 2000명대로 올라섰다. 2000명대 확진자 발생은 광주와 전남 모두 지난 1월 4일 이후 처음이다.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는 숨은 확진자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실제 확진자수는 2000명대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과 격리 의무 해제, 휴가철 밀접 접촉 등으로 당분간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손 씻기, 기침 예절, 주기적 환기 등 일상생활 속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국힘 '폭우 골프'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

윤리위, 직권상정 8일만에 결정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26일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8일 김기현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같은 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 논의의 안건을 직권상정한 지 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윤리위가 당 소속 사·도지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2015년 7월 '성완중 리스트'에 연루돼 당원권 정지 정지를 받은 이후 8년 만이다.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

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올랐다.

특히 홍 시장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17일 SNS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적사회에 어디 있나"라는 글을 올렸고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부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여론을 악화시켜 이 점이 징계 사유로 추가됐다.

홍 시장은 지난 19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논란을 빚은 SNS 게시물 두 건을 자진 삭제한 뒤 윤리위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상황 근무 현황표 등을 제출했다.

그러나 홍 시장은 지난 20일 윤리위 징계 개시 결정 이후 SNS에 '과하지욕'(跨下之辱·가량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고사성어를 올리며 불만을 표출해 또 다시 논란을 자초했다.

그는 이후 해당 SNS 글을 스스로 삭제한 뒤 지난 24일부터는 수해 봉사 활동을 하며 '반성행보'를 이어갔다.

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고 소명자료만 제출한 뒤 경북 예천에서 사흘째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The new EQS SUV

당신이 찾던 럭셔리 미래.
This is for pioneers.

MERCEDES-EQ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민중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E 3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4.3(도상: 4.5, 고속도로: 4.1) 1회 충전거리(km): 471, 공차중량(kg): 2355, 배터리 용량(kWh): 88.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운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양 및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